

□ 개요

- 목적 : 해외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수주전략 지원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일시/장소 : '21. 7.9(수) 13:30 /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정책과장, 정경인 서기관 등 3인
 - 협회 : 정책지원센터장 등 4인
 - 기업 : LG CNS, KT에너지플랫폼 임직원 2인
 - KIND : 김소웅 실장
- 안건
 - 21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및 하반기 전망
 - 해외건설 정책지원방향 공유
 - 주요국* 해외건설 동향
 - * 미얀마, 리비아, 이란, 페루
 -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 정보 공유
 - * 케냐, 우즈베크, 베트남, 인니, 페루, UAE
 - 기타 : 건의 및 애로사항 등

□ 주요 내용

○ 해외건설정책과장

- 스마트시티가 해외건설의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는 상황 속에서 관련된 정부의 큰 그림을 공유하고 기술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를 위해 본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업별 주요 내용

■ KT 에너지플랫폼

- KT는 경남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알제리 시디압텔라 신도시 사업에 광통신망 구축 및 스마트시티 관련 기본제안 등을 진행했으나, 대금 동결로 마무리는 짓지 못한 상태임
- 해외 사업 수주에 있어서 해외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국내 사업자끼리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으며, 경쟁 대신 협업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대기업은 ODA 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제로 인해 스마트시티 관련 실적조건 충족이 힘든 실정이며, 반면 중소기업은 선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으로 다양한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 기회 모색을 위해 규제 완화 부탁드립니다
- 치과예약 문자 자동화 시스템 등 Digital Transformation 위주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발굴 중이며, 백신 접종 정보 확인을 위한 Clean Pass 앱 제작 (질병청과 협의 중), 인천공항공사와 방역 우수 국가 간 여행객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Bubble Pass 협약 후 추진, 심장 박동 수 측정 반지를 개발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검토 등 통합 관제 시스템 특화 기업으로서 디지털 헬스 플랫폼 구축에 적극 투자 중임

■ LG CNS

-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를 통한 스마트시티 민관 동반진출 전략은 스마트시티의 높은 사업 리스크 (개발기간 등)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함
- 15개 법인 중 4개 법인(콜롬비아, 그리스, 말레이시아, 카타르)이 SOC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PF 사업 1건 당 법무/회계 등의 부대비용이 30~50억씩 발생하기에, 정부의 비용적 지원 확대

필요

- 국내 스마트시티 설계 사업 추진 시 대기업에 대한 까다로운 입찰 조건 및 규제로 인해 문ENG, 대영유비텍 등 중소기업 위주로만 참여하는 실정이며, 이는 해외 진출을 위한 IT 전문 대기업의 실적 축적을 어렵게 하고 다양성을 떨어뜨리기에 ODA 사업 등에 대기업 진출 규제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진부해지는 것이 스마트 시티 시장의 특징이며, 다양한 기업이 국내에서 여러 실험을 통해 경험 축적 후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내의 실험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스마트시티 신도시 수출 사업은 조 단위 규모의 사업으로 리스크가 높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 발굴 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리드가 중요함

□ 향후 계획

-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정부 건의 검토 등. 끝.

- 정책지원센터 -

붙임 : 주요 참석자 명단. 끝.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과장	오성익	
		정경인	서기관	
해건협	정책지원센터	센터장	정창구	
KIND	사업총괄실	실장	김소응	
해외 건설 기업	LG CNS	팀장	오기도	
	KT에너지플랫폼	팀장	강동현	